

## 한반도 기후변화 ‘역습’ 전남 농수산물에 ‘재앙’

폭우·태풍·가뭄·저일조현상  
기상이변에 예측불허 피해  
왕우렁이 되레 벼농사 해치고  
농촌에 열대성 병해충 확산  
해수 온도 상승 해파리 출현도



강진의 한 논에서 왕우렁이가 어린 모의 잎을 갉아먹고 있다. <강진군 제공>



전남 근해에서 어민의 그물에 걸린 해파리.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제공>

주고 있다.  
돌발해충은 최근에 갑자기 개체 수가 늘어나 큰 피해를 주는 외래해충으로 먹노린재, 갈색날개매미충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해남을 비롯한 전남지역에 가장 문제가 되는 먹노린재는 월동 성충이 6월 중순 논으로 날아와 분얼(가지) 수 감소, 백수 쪽집기 등 피해를 유발해 품질에 영향을 준다.

전남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그동안 방제에 힘써 외래 열대 병해충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지만 겨우내 기온이 따뜻해 언제든 다시 확산할 수 있다”면서 “농가에서는 꾸준한 예찰과 방제를 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해파리의 역습=기온 상승은 해수의 상승으로 이어져 전남바다에 바닷가의 공포로 불리는 해파리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전남 일부 지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했다.

전남의 바닷가에 출현해 주로 피해를 주는 해파리는 보름달물해파리와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 4~6월 고층 특랑만과 완도 등 전남해안 일부 해역에서는 보름달물해파리 유체가 밀집 출현했고, 지난 6월부터 제주~남해안 사이에 다량의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해파리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남해안 해역에서는 해파리의 대량발생이 전망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해파리는 수산물을 어획하는 과정에서 그물이 찢어지는 등의 어구의 손상을 입힌다. 이로써 조업이 지연되고, 그나마 잡힌 물고기들도 해파리 촉수에 쏘여 상품성을 잃게 된다. 결국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로 이어진다. 또 해상에서 혼자서 작업이 많은 어업 특성상 어업활동 중 해파리에 쏘이게 되면 어민들의 목숨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어업인과 해수욕객들이 해파리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해파리를 목격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관할 지자체 및 해경, 소방청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북구 총력 11일 오전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마을에서 마을주민과 군장병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마을은 지난 7일과 8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 주택과 차량이 매몰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최현배 기자choi@

### 문 대통령 “가용자원 총동원 수해복구 지원”

집중호우 점검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최근의 폭우와 관련해 “피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 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달라”며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지원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피

해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장마는 오늘 로써 가장 오랫동안, 가장 늦게까지 지속된 장마로 기록됐다”며 “막바지이지만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더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 농산물 수급 관리와 시설물 안



문재인 대통령

전기준 점검 등에도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날집중호우 긴급점검국무회의에서는김영록 전남지사와김경수 경남지사를 화상으로 연결, 피해상황 및 긴급 복구계획,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폭우 전남 ‘초토화’ ... 피해 규모 ‘눈덩이’

민간부문 피해액 1440억원  
공공부문 합치면 2800억원  
특단의 조치 마련해야

지난 7~9일 전남지역을 초토화한 폭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1일 전남도가 임시 집계한 결과 민간 부문 피해액만 1440억원을 웃돌고 공공부문까지 합치면 28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민간 피해의 경우 수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보상되지 않거나 복구 지원금이 미미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에 따르면 11일 오전 8시 기준 전

남지역 재산피해는 2836억89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유시설 1445억5600만원, 공공시설 1391억3300만원이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오후 4시 기준 공공시설 800억원, 사유시설 300억원 등 1100억원의 1차 피해 집계 조사 결과를 내렸지만 불과 하루 사이 피해액은 2800억원대로 치솟았다.

안병욱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1차 조사 당시 기준을 엄격히 해 집계했으나 피해 해 시군 주장을 대폭 수용하고 밤사이 피해 내용이 추가로 확대되면서 피해 규모가 대폭 늘었다”며 “여전히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최종 피해 집계액은 이보다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사유시설 피해 규모는 주택 2329동·농경지 6174ha·축산 33만8000마리·수산

870만마리 등이다. 공공시설은 도로 88곳·하천 100곳·상하수도 62곳 기타 85곳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수해를 본 10개 시·군 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파악된 곳은 담양으로 피해액은 1274억원이다.

구례와 곡성은 각각 568억원과 539억원으로 피해액이 임시 집계됐다. 구례는 주택 1182채가 침수됐고 농경지 421ha가 피해를 봤다. 곡성은 주택 148채·농경지 560ha·축산 8만9000마리·수산 570만마리가 피해를 봤다. 다음으로 피해액이 큰 시·군은 장성 114억4000만원, 영광 92억9000만원, 나주 82억9000만원, 함평 79억6000만원, 화순 75억5000만원 순이었다.  
▶2면으로 계속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촉촉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시니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